

해외스타들 “매일 불교 명상하세요”

헐리웃스타와 해외 유명뮤지션, 그리고 유명인사들은 대중들로부터 화려한 인기와 시선집중을 한 몸매 받는다. 때문에 그들의 삶 이면에는 개인적 고독과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한 가정 문제 등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연기 활동에 필요한 집중력 등을 얻기 위해 종교 활동에서 위안을 찾는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구지역에서 명상수행을 비롯한 불교 및 동양철학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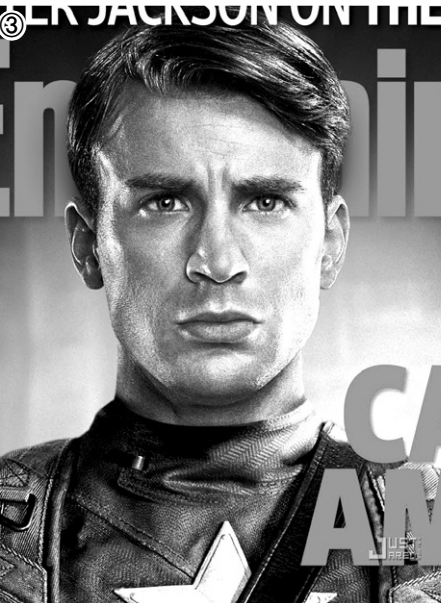
① 명상 옹호론자로 나선 미 재계(오른쪽에서 두번째) ② 자신을 주인공으로 온라인 명상게임을 만든 마일리 사이러스 ③ ‘어벤져스’의 크리스 에반스

크리스 에반스 ‘나는 불자’ 밝혀
막제거...정기적으로 라오스 여행
마일리 사이러스...명상게임 개발

CEO나 정치인들도 가세하고 있어 명상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화 ‘어벤져스(2012)’의 캡틴 아메리카로 유명한 배우 크리스 에반스(31)는 불교신자다. 그는 2005-2006년 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인도 북부 리시케시(Rishikesh)에서 3주간 머무른 적이 있다. 또한 미국 LA에서 불교강좌를 듣는 등 열성적인 불교신자다. 크리스 에반스는 16-17세 무렵부터 철학서를 탐독할 정도로 철학적인 소년이었다. 그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철학책을 읽으면서 모든 철학과 종교를 아우르는 하나의 종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때 나는 내가 불교신자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전설적인 록밴드 롤링스톤즈의 멤버 믹 재거(68)는 종종 홀로 라오스로 여행

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대중지 더 선(The Sun)은 “믹 재거는 라오스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며 “그는 라오스 사원에서 스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염불을 같이 한다. 또한 매일 아침 일어나 명상 수행을 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세계최대 불교전문 출판사인 샴발라 선은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믹 재거가 롤링스톤즈 멤버들과 ‘매일 명상하세요! (Meditate every day!)’ 라는 쪽지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믹 재거가 명상 옹호론자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디즈니 어린이 채널을 통해 스타가 된 미국 ‘국립 여동생’ 마일리 사이러스(19)는 자신의 팬들을 위해 온라인 명상 게임을 만들기도 한다.
사이러스는 “명상을 많이 하세요. 그리

고 내 삶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하세요”라면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온라인 명상게임을 통해 소녀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영화 ‘플래툰’ 7월 4일생’의 감독 올리 버스톤(66)도 불교신자다. 그는 1994년 UC 버클리 개강 연설에서 “불교는 이 나라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 단지 구식적이면서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로 여겨질 뿐”이라며 “그러나 불교는 매우 활성화된 종교로 현대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감독 데이비드 린치 역시 30년 가까이 하루에 두 번 90분씩 명상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는 “의식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말한다.



이 밖에 불심이 깊은 스타로는 재즈피아니스트 허비 행콕, 가수 티나 터너, 제니퍼 로페즈, 마이클 조던, 데이비드 베컴, 엘라니스 모리세 등이 있다.
이처럼 벽안(鵜眼)의 서양 스타들이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비트 운동(Beat Movement)’과 무관하지 않다. 알렌 긴스버그 등 작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비트 운동의 근간에는 선불교 등을 통해 개인적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 자리한다. 기독교 국가로 유명한 미국이지만 백인 중심의 획일화된 사회조직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일부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도 불교 확산에 한몫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너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서구의 대표적 중국불교 연구자

세계의 불교학자(25)

로버트 샤프
美 UC버클리대 불교학 석좌교수



로버트 샤프(Robert Sharf · UC버클리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불교학) 석좌교수는 서구에서 대표적인 중국불교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중국 불교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설정해 다뤄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주된 연구로 삼는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인 샤프 교수는 토론토대 종교학과에서 중국학을 동시에 전공했다. 198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불교학의 대가 루이스 고메즈(Luis Gomez) 밑에서 논문을 준비했다.
〈보장론의 번역 및 분석〉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낸 샤프 교수는 이를 2002년에 〈중국불교와 합의를 본다(Coming to Terms with Chinese Buddhism)〉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인도 불교’ 또는 ‘중국 문화’라는 화석화된 사상을 전제한 기존 연구를 비판하면서, ‘구마라집 이전 성립된 불교를 인도 불교의 오해 아니면 곡해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진다. 그는 또 경전이나 서에서만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순수 체험을 중심으로 한 불교, 즉 ‘인도불교’가 중국에서 의식화 및 종교화 됐다는 의견을 반박한다. 그의 이런 생각은 의식과 체계화된 종교를 명시하는 경향이 높은 신교도 문화권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샤프 교수는 이후 1989년 캐나다의 맥메스터대에 교수로 임용돼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후 미시간대에서 재직하다 버클리대에서 불교학과를 재편성할 때 스카웃 돼 현재 버클리대 불교학과 학장 및 불교학센터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샤프 교수의 여러 논문 가운데 각광을 받는 논문은 〈종교체험 수사법(修辭法)-Rhetoric of religious experience〉과 〈일본 국수주의와 선(Zen and Japanese Nationalism)〉 등이다. 여기서 그는 “선불교와 종교체험이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스즈키 다이세츠가 미국의 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책 〈다양한 종교체험(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을 읽고 제임스의 ‘순수 체험(pure experience)’이라는 생각을 빌려 선(禪)의 체험을 구사한 것으로부터 연유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정신사학적인 측면에서 ‘체험’이라는 말이 종교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종교학이 본격적으로 학계에 대두한 20세기 전반이었다”며 “종교학이 역사학·사회학·인류학·심리학과는 다른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종교 특유의 주제를 종교학에서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즈키가 ‘순수체험이 역사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체험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수사법(修辭法)을 벗어난 선(禪)과 종교를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스즈키로부터 ‘제임스의 순수체험’이라는 사상을 배운 니시다 키타로와 같은 일본 국수주의 학자들 덕택에 선(禪)체험이 일본인들 고유의 정신적·신령적 특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일-중일 전쟁의 성과가 이 경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토론토대서 종교학·중국학 전공 중국불교역사 중점 연구

간화선 세미나서 ‘공안’ 주제 발표

샤프 교수는 2010년 동국대에서 열린 국제간화선 세미나에 참석해 “학자들은 선 공안을 해석의 형태로는 전혀 다루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 공안, 어떻게 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샤프 교수는 “서구에서 중국과 일본의 선불교에 관한 인기 서적들은 공안을 비논리적인 역설 또는 수수께끼라고 주장하면서, ‘이것들은 지적 능력을 방해하고 단절시켜 사고를 억누르고 수행자에게 깨달음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며 “최근 몇몇 학자들은 선 공안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선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이 역사적, 민족지학적 기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샤프 교수는 “학자들의 그러한 태도는 잘못된 형식했으며 일부 공안들은 교리적 취지를 보완함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다. 공안들은 철학적으로 섬세하고 해석학적으로는 기교적이기 때문이며, 저자들이 모호한 암시나 기지에 찬 의식, 그리고 능숙한 대답을 즐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 10명 중 0.6명 불교도”

퓨리서치 조사... 개신교 61%, 무교 23%, 가톨릭 10%

한국계 미국인 10명 가운데 0.6명이 불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1-3월 전국 아시아계 미국인 3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종교성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 응답자 504명 가운데 6%가 자신을 불교신자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종교는 개신교(Protestant)로 61%를 차지했으며, 무교(unaffiliated)와 천주교 신자(Catholic)는 각각 23%와 10%로 집계됐다.
한국계 미국인의 크리스천(개신교·천주교 신자) 비율은 71%로, 필리핀계 미국인(89%)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일본

계는 38%였으며, 베트남계(36%)와 중국계(31%), 인도계(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계 미국인의 58%는 ‘어릴 때 종교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응답해 인도계(82%), 베트남계(77%) 필리핀계(73%)보다는 낮았으나 일본(52%)과 중국(54%)보다는 높았다.
보고서는 “최근 수십년간 아시아 출신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인구의 5.6%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국민 가운데 불교와 힌두교 신자들의 비율은 2%로, 유대교도와 맞먹는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너는 기자

교포 청소년 “한국문화, 원더풀!”

조계종 아동부특별교구, 한국불교문화 체험 진행

7월 9~16일 조계사, 골굴사 등

미국 동부 교포 청소년들이 한국의 불교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아동부 해외특별교구(교구장 휘광) ‘청소년 한국문화체험연수단’은 7월 9-16일 7박 8일 간 서울 조계사, 경주 골굴사 등을 방문하고 한국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첫째 날에는 인천 용화사에서 참선 체험을 했으며, 이후에는 조계사 참배, 불교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관람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경주 불국사 참배, 원효대사 유적지 관람, 골굴사 선무도 체험, 해안사 야외참



조계종 미국 동부 교포 청소년문화체험단은 7월 9-16일 서울 조계사 등 전국을 순회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선, 여수 엑스포 참가 등의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다.
이번 연수단을 인솔한 뉴욕불교신도회 고병희 부회장은 “참가 청소년들 모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 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선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경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총회 총회의장 석덕오 부 원 장 석일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중	사정원 사정원장 석범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범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대주 동원부장 석범원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철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범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범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범오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전북총무원장 석철산
마산총무원장 석범담
전남총무원장 석범경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로의장 석효각
원 장 석정명 부 원 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재무부장 석준물 문화부장 석범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재
중앙총무원장 김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지현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이사진 및 정회원 수시모집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한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